

제20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

"상처입은 세상,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 공동문서
Serving a Wounded World in Interreligious Solidarity
A Christian Call to Reflection and Ac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목차

진행: 박태식 신부(한국신앙과직제 공동신학위원장, 성공회대학교)

- 인사 김희중 대주교 (한국신앙과직제 공동의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홍정 총무 (한국신앙과직제 공동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기도 다함께: 일치를 위한 기도

* 사회: 장영주 위원(한국신앙과직제 신학위원, 구세군사관대학원대)

- 발제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 공동문서
상처입은 세상,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코로나 사태와 그 후의 성찰과 행동을 위한 그리스도교의 제안” • 6
Serving a Wounded World in Interreligious Solidarity
A Christian Call to Reflection and Ac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박재찬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논평 “상처입은 세상, 성찰과 행동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제안”

- 영성 이현숙 수녀(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 15
정금교 목사(대구 누가교회) • 20
- 기후위기 장운재 목사(이화여자대학교) • 24
- 다양성과 포용성 양주열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 33
- 교회의 봉사 김은혜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 39

전체토론 다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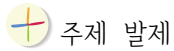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교파 간의 신앙적 친교를 이룸은 물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2014년 5월 22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일치를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교황청-세계교회협의회 공동 선언문

Serving a Wounded World in Interreligious Solidarity

A Christian Call to Reflection and Ac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코로나 사태와 그 후의 성찰과 행동을 위한 그리스도교의 제안”

박재찬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한 정부와 단체들의 온갖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예전과 같은 모임과 여행을 할 수 없고, 매일 방역을 하고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자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들이 더욱더 소외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의 상황은 종교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세상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는 종교가 미사와 예배 등의 집회와 모임으로 감염의 온상이 되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를 염려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종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왜 계속해서 모임을 가져 상황

을 더 악화시키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도전적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진, 제약회사 그리고 심리학자는 필요하지만 종교인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종교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일까?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인간 신체의 전염병 차원을 넘어 기존의 인간 삶의 형태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소외되고 상처받는 이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사명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바로 지금이 종교인들이 연대하여 병든 세상을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라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에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는 종교 간의 연대를 통해 상처 받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기를 촉구하는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의 성찰과 행동을 위한 그리스도교의 제안”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는 우선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한 후 이를 평가하고, 한국의 상황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1. 문서 요약

이 문서는 서문과 본문의 다섯 가지 주제,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웃과 고통 속의 세상을 향해 교황청-세계교회협의회가 이 문서를 발표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경계를 초월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위해 종교 간의 각성과 협력 및 연대가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다.

본문에 들어와서는, 첫째 이 문서는 코로나 전염병이 지구 공동체에 미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전염병이 모든 인간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분야 등에서 다양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위기이고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필요하고 그 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이 문서는 “희망으로 지속되는 연대”라는 주제 아래 전염병으로 절망에 빠진 세상에 종교가 서로 협력하여 희망을 불어넣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코로나로 초토화된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보편적이며 공통된 윤리적, 영적 가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이 문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종교 간 연대를 위한 기초”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한 가족이기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종교 간 연대는 “보편적이며 경계를 넘어서며 모든 인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당신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다른 종교 전통에서 “더불어 아파하는 자비로운 마음”과 서로 연결되기에 종교 간 연대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딛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마련하셨듯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 안에서 함께 연대하며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이 새로운 삶의 존재 방식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 간 연대에서 중요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신앙을 지닌 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도록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에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서로 연대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문서는 종교 간 연대를 위한 7가지 원칙들을 인식하길 당부하고 있다.

- 1) 그리스도의 수난과 세상의 고통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겸손”에 대한 인식과 정의를 외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연약함”을 인식하기,
- 2) 모든 차별을 줄이고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각 개인들이 처한 독특하고

복잡한 상황 존중하기,

- 3) 바르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소외된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비로운 연민을 키우며 공동선을 촉진하기,
- 4)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 대화와 상호 배움의 기회를 갖기,
- 5) 치유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 억압적인 체제와 공모하여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와 자기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쇄신의 길을 가기,
- 6) 하느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상처 입은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관용의 자세 갖기,
- 7)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마지막으로 이 문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 7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1) 고통을 증언하는 방법을 찾기,
- 2) 배타주의를 넘어 포용주의 문화를 증진시키기,
- 3) 영성을 통하여 연대를 강화하기,
- 4) 상처받은 인류를 위해 타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에 대한 교육 강화하기,
- 5) 젊은이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 6) 다양한 단체가 서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 마련하기,
- 7) 종교 간 연대를 위한 계획과 과정을 재구성하여 상처받은 세상에 함께 봉사함으로써 서로의 이웃이 되기.

결론으로 이 문서는 종교 간 연대는 교회 일치와 다른 종교 간의 평화, 정의, 상호 유대를 구축하게 해주며, 이웃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앙 본연의 가치를 재현하고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상처 입은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교회일치적, 종교 간 연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그 힘을 얻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2. 이 문서에 대한 평가

- 1) 이 문서는 전염병으로 상처받은 세상을 위해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가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다른 종교를 초대하며 공동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특별히 위기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성령의 부르심”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 2)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에 기초하여 이웃 사랑과 봉사라는 그리스도인 본연의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상처받은 이웃과 지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소명인 것이다.
- 3) 모든 경계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종교 안에서도 이미 강조되고 있는 소외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활동에 대한 대화” (the dialogue of action)¹⁾에 부합하고 있다.
- 4) 타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이웃의 영역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종교 간 대화와 종교 간 연대가 “개인의 의식 변화”뿐 아니라 “세상의 의식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일치된 이는 “자신만” 혹은 “우리 집단만”을 위해 헌신하는 배타적인 의식에서 포용적인 의식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보편적인 의식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경계 없는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증가된 개별 종교 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세상에 봉사할 때 세상의 의식의 변화와 성장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 5) 이 문서는 종교 간 연대는 무엇보다 “주변으로 몰린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사랑과 봉사의 방향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종교의 역할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인상적이다.
- 6) 종교 간 연대의 7가지 원칙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의 회개와 쇄신에서 출발하여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공동체와 공동선을

1)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PCID)는 “대화과 선포”라는 문서에서 네 가지 형태의 종교 간 대화를 언급한 바 있다: 1) 삶에 관한 대화, 2) 활동에 대한 대화, 3) 신학적 교류에 관한 대화, 4) 종교적 체험에 대한 대화. 참조: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Dialogue and Proclamation,” in *Interreligious Dialogue: The Official Teaching of the Catholic Church from the Second Vatican Council to John Paul II (1963-2005)*, ed. Francesco Gioia (Boston, MA: Pauline Books, 2006), 1171.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포용하여 진정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공동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7) 종교 간 연대를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어 고려해야 할 7가지 제안들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상황 안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큰 지침을 제공해 준다.

3. 한국 실정에서의 과제들

- 1) 한국은 다양한 종교와 유사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종교 내부에서도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종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종교가 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종교간 연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연대가 가능한 종파들 간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을 원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비대면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증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매스 미디어의 공동 활용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는 상처받은 인류를 위해 타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과 새로운 의식과 비전을 교육하는 훌륭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종파와 어떻게 연대할 것이며, 그들의 의식을 어떻게 깨어나게 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의 큰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포용주의 문화를 증진시키고 이를 보편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종교간 연대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 4) 종교가 영성을 통해 연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의료진 및 확진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기도문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5) 확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확진 후 완쾌된 이들의 심리적 영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종교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종교가 온라인 콘텐츠, 전화 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과 일터에서 소외된 그들에게 영적 쉼터가 되

어 주며, 종교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영적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완쾌자들을 위한 영성(피정) 프로그램이나 심리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젊은 종교인들과 함께 하는 것도 그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와 소명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 “심리적 불안과 영적인 공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간 연대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해 어떤 새로운 의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을 겪은 많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나 비전의 제시가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동 연대를 통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나눔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하며 안이한 낙관주의적 입장에서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이다.

결론

코로나-19는 인간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불가항력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 중심이던 기존의 관습과 가치관은 공존을 위한 상호 연대를 통해 재구성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의식으로 건너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러한 “건너감 (Pascha)”을 돕기 위해 종교는 자신의 종교만을 생각하는 배타적인 자세를 넘어 공동 연대를 통해 세상이 새로운 의식 속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상처를 받고 고통에 처한 이들과 소외된 이웃들,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이 다리를 건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교가 먼저 자신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를 통해 의식의 전환 혹은 변형(transformation)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종교가 개방성과 성숙한 자

세로 상호 공존의 길을 제시하며 사랑과 자비로 나아갈 때 전염병으로 길을 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의식의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차원에서 의식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의식의 전환은 자신의 종교 내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자아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한다. 심리학자요 신학자인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는 자신의 신앙 발달 이론에서 그 마지막 단계를 보편적인 신앙(Universalizing faith)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신의 종교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난 이들은 더 이상 배타적이거나 홀로 있지 않고 오히려 개방성을 지니게 되고 보편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트라피스트 수도승이요 널리 알려진 영성 작가인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도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가는 의식(trans-cultural or trans-religious consciousness)으로 성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계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는 배타적인 의식을 넘어, 나아가 포괄적인 의식을 넘어 모든 이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먼저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먼저 “그리스도화”됨으로써 의식의 전환과 내부의 쇄신을 이루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난 한 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켈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의 삶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로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

두 번째 차원에서의 의식의 전환은 종교와 종교 간의 관계의 변화이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종교는 경쟁자나 이교인이 아니라, 친구요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한다. 다른 전통의 종교인들 사이에서 먼저 상호 존중과 이해 안에서 서로의 삶과 영성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우며 깊은 유대를 형성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의 의식은 전환될 것이다.

세 번째 차원에서의 의식의 전환은 종교와 세상의 관계의 변화이다. 정교 일치의 세상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로 분리되어 각자의 규칙대로 살아왔고 나름대로 종교는 세상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면서 “제발 그만 모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제 종교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상호 연대를 통해 세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세상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다가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오래된 의식과 규율들이 부서지고 새로운 의식과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종교가

세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파하는 곳, “세상의 변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종교를 향한 성령의 외침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직접 치유하시기도 했지만 그들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다. 그리고 기존 종교인과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다. 그 가르침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새로운 건너감을 위해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살아야 한다. 토마스 머튼은 “자신의 것에 대해 마지막을 고할 때 하느님의 것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에 마지막을 고할 때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이 시작된다. 상처받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 상처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종교들이 서로 연대하여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영성과 상처 입은 세상과의 관계

이현숙 수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공동 발의한 문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난 인간의 비참함과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찰하였다. 어느 누구도 전염병을 피해 갈 수 없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소명이 있다. 이들은 하느님 안에 하나의 가족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함께 거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이러한 상호관계성이 더 파괴되었고, 그 결과 인간 자신은 물론 전 지구적 차원의 생명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방향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고통 받는 피조물의 치유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 즉 범종교적-시민적 차원에서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제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그리스도교 영성과 영적 수행’이 고통받는 세상과의 연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영성이란 용어는 본래 그리스도교적 용어이다. 즉 하느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영적인Spiritual, 인간 내면의 깊은 곳, 즉 하느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영혼과 관련해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신종어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르침, 교훈, 사람의 품성, 영혼의 품성(신앙심), 한 개인이나 집단의 종교적 삶의 태도와 행동양식 등이다.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공동 발의한 문서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세상의 고통에 연대를 위한 소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영적 수행은 세상 고통의 치유와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마도 내면적 성향을 가진 영성과 영적 수행이 오늘날 단순히 개인의 수덕 혹은 신심 생활에 머물고,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대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하고 풍부한 영성과 영적 수행을 계승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도원을 중심으로 꽃피운 - 갈멜의 영성(십자가의 성 요한 영성, 아빌라의 데레사 영성, 리지에의 소화데레사 영성 등), 베네딕도의 영성, 아씨시 프란치스코 영성,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성과 영적 수행 - 그리고 여러 은수자, 신비가들의 영성과 영적 수행이 전해오고 있으며, 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현대 그리스도교 영성이 있다. 이러한 영성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략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과 실천. 즉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내적인 변화와 자아 초월이다. 이를 통해 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셋째, 교회와 세상을 위한 성령의 은총이며 선물이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웃과 공동체, 나아가 우주적 연대로 확장된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식별하는 기준이다²⁾.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초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 절대 가치에 대한 경험과 실천, 자아통합과 초월, 공동체성 - 가 모두 갖추어진다면 영성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교집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종교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가 가능하다.

현대 그리스도교 영성은 여성 운동과 여성 신학자, 해방신학, 환경생태 신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오늘날 세상의 고통이 가장장적이며 인

2) 송차선, 「현대 그리스도교 영성과 청소년영성의 만남」, 『한국그리스도사상』 (제11집 2003), 그리스도사상 연구소, 110-160.

간중심적, 물질 절대 중심적 삶의 결과로 지목하고, 그 중심에 왜곡된 인간의 관계성이 자리하고 있다 보았다. 인간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이기에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성에서 인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과거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본래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이 왜곡되어 실행되어졌음을 발견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성을 재해석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느님의 위격은 위계적 관계가 아닌, 즉 서로를 향한 전적인 개방, 사랑, 친교, 일치, 헌신의 관계이다. 여기에는 각 위격의 서로의 다름이 존중되면서도 서로를 풍부하게 해 주는, 동등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가치로 서로를 고양하고 있다. 현대 영성은 이러한 신적 관계성은 남녀, 계층 간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안에 실행되어질 때,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의 구조적 모순, 불화와 반목, 분열의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³⁾.

결론적으로 현대 그리스도교 영성은 과거에 비해 영성의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이는 과거 그리스도교 영성이 성과 속을 구분하는 다분히 내세적이며, 개인적 경향이 농후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인간중심적이며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 시대의 사조와 결합된 영적 세속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⁴⁾. 반면 이와 정반대로 사회성만을 강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갈수 있고 많은 것을 세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다. 자선하는 NGO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정배인 교회는 아니다”⁵⁾ 결론적으로 참된 그리스도교 영성은 내면성과 사회성 두 차원의 조화로운 균형을 필요로 하다.

이상에서 본 두 조건을 잘 구비된 그리스도교 영성은 아씨시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잘 드러난다. 복음적이며 삼위하느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 감각을 갖춘 그의 영성은 800년 앞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보화를 전해주고 있다. 특히 ‘우주적 형제자매애’와 ‘작은자’의 영성과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세상의 치유

3) 상동 124-130.

4)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현대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권고 95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2014, 82-86.

5) 2013. 3. 14 추기경단과 함께한 미사 강론 중에서 (L'Osservatore Romano 2013, 3)

와 이를 위한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주적 형제애’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 생명이 있는 것 혹은 없는 것 모두가 하나의 기원(삼위이며 하나이신 하느님)에서 유래하며 형제자매애로 연결되어 있다는 성인의 생생한 체험에 관한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수준에서 하느님의 자취를 반영하고 있기에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특별히 하느님 모상 imago Dei을 지닌 존재인 인간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한 소명을 받았다. 이를 위해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⁶⁾. 그러나 탐욕에 눈먼 인간은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이로부터 세상의 죄와 악,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는 개인적, 사회 구조적 차원에 관한 두 가지를 모두를 포함하며,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⁷⁾. 프란치스코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회의 삶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경에 기초한 관상과 매일의 기도, 성경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의 실천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았다. 이러한 영적 수련을 통해 그는 탐욕과 이기심이 정화되었고,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열매는 ‘작은자’의 영성과 윤리 안에 농축되어 있다. ‘작은자’는 하느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베푸신 선을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른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많은 것을 제공하는 피조물에게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한다. 형제자매들 안에서 삼위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기에 사람들은 존중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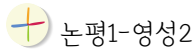
프란치스코는 사회 구조적인 악을 물질적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필요 이상의 것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하느님의 것을 훔치고, 다른 이의 것을 훔치는 도둑의 행위다. ‘필요충분의 윤리’는 적극적으로 물질적, 심리적,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몫을 되찾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무차별과 착취하고 소모하는 경제 원리를 멈추게 할 것이다. 따라서 ‘작은자’의 영성과 윤리는 모든 피조물의 공동의 집인 지구와 세상 만물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태도, 그리고 인간의 소명, 지구의 공동의 선을

6) 이현숙, 「도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서의 영적자유: 장자와 아씨시 프란치스코와의 만남」, 『프란치스코 삶과 사상』 (제 41호 2014년 봄), 프란치스코 사상연구소, 66-67, 91

7) 상동, 49-68

8) 상동 137-190

위한 봉사와 연대를 촉구한다. 이는 바로 프란치스코의 깨달은 바와 같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종말에 완성될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력하는 길이다.



정금교 목사
(대구 누가교회)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문서는 교회가 현실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민한 글이라 여겨져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영역에서 드러내 줌으로써 차별과 불평등 상황이 인종과 난민과 취약계층과 수감자 등의 주변으로 몰린 이들에게 특히 더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태도와 행동의 생태적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취약하다는 경각심에 아프게 동의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요청된다는 호소에 큰 공감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대는 어떤 것일까, 전문을 읽는 내내 절실했고 궁금했습니다.

우선 이 새로운 연대는 공통된 종교적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책임을 지고 모든 피조물의 상처에 대처하도록 세상에 다시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접근하고 실행하자는 요청은 그만큼 현실이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이를 시대의 촉구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대의 신앙적 바탕과 연대의 행동에 대해 제시한 원칙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한층 고양시키리라 기대합니다.

종교 간의 새로운 연대는 새롭기보다 오래된 미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새길에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회복이며 복음으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은 교회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가치관으로 호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려는 종교 간의 연대, 그리스도인들의 연대 제안은 공의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저는 공동문서와 박재찬 신부님의 제안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연대의 욕구가 있을까, 연대는 어떤 성격과 방향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

새로운 연대가 필요한 이유가 단지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폐쇄적인 울타리를 형성하였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만의 리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복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사회에 가치관을 제공하지 못했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교회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전염병으로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이제껏 복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야 마땅합니다. 보잘것없는 이들과 자신을 일치한 예수를 이해하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경계를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비복음적 존재 양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대안과 회개의 촉구가 없는 대안은 현재의 연장이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공동문서의 원칙들 중 **5. 회개와 쇄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억압적인 체제와 공모하여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암묵적으로 불의한 체제를 지속”시켰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 그것입니다. 이 지적을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계를 넘는 행동이 더 분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에서 사용한 ‘경계 인식’이라는 말은 참 적절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나/타자, 우리/이웃, 교회/세상이라는 경계를 만들고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구분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경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구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타인을 얼마나 꺼려하는지, 세상은 어떤 상태 인지를 인식하고 직면하여 그 거리를 줄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경계를 짓고, 구별하고, 무관심했던 태도를 통해 (전문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불의한 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지점, 이를 인식하는 지점이 종교 간 연대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경계를 인식하고 경계를 넘어 대상에게 다가가는 행동은 회개의 열매로써의 행동이라야 할 것입니다.

3.

“모든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연대”는 시급하고 절박한 요청이라는 취지에 맞게 우리의 대안과 제안 역시 담대하고 근원적이길 바랍니다. 복음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과 행동 전제는 시대와 역사를 넘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상처 입은 세상의 호소에 응답하려는 한국 교회의 지침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역사성과 현장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염병 앞에서 모든 이가 예외일 수 없지만 취약한 이들은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정도였습니다. 취약한 이들의 고통에 응답하려면 비극의 속도를 따라잡고 고통의 깊이에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 교회의 대응은 느렸고 표면적이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취약한 상황보다도 취약하게 된 원인에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가난에 동정하기보다 가난의 원인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래디칼하다는) 근원적인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약한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압박이기도 합니다. 정치와 사회를 향해 구조적 불평등을 고발하며 이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압박으로써의 연대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대’는 교회가 좀 더 차별과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지지한 셈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조용한 압박을 넘어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이면서 생태적 전환을 끌어내야 하는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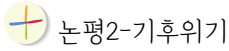
박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4.

박재찬 신부님의 글은 공동문서보다 좀 더 보수적인 제안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공동문서가 종교 간 연대가 함께 지향할 길에 대해 무게를 두는 것에 비해, 박 신부님은 연대체의 형성에 관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의 활동이 공동문서보다 더 개인화되어 제시됨으로써 한국에서 종교 간 연대가 구조적 문제에 접근할 여지가 가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현주소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서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대 활동은 좀 더 근원적인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지금의 지구적 위기에서 우리는 함께 살길을 찾자고 호소합니다. 즉 사회적 영성을 요청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시혜적 인식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길을 찾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서로 고통을 나누는 인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종교 간 연대가 시작되고 이 연대가 이웃과 세상 속으로 (시급히)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는 기후위기가 만든 환경전염병이다

장윤재 목사
(이화여자대학교)

마크 제롬 월터스의 『에코데믹, 끝나지 않는 전염병』(책세상, 2020)은 요즘 처럼 코로나로 집밖에 나갈 수 없을 때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29:9, 개역개정) 하나님과 같은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거짓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레미야는 칼(전쟁)과 굶주림(기근)과 전염병 -이른바 고대근동 ‘3중 저주’- 으로 민족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

책의 원제목 *Six Modern Plagues - and How We Are Causing Them*이 말하듯이, 저자는 21세기 우리의 도시들에 돌고 있는 기이한 새 전염병 여섯 가지를 깊숙이 추적한다. 그것은 광우병, 에이즈, 살모넬라, 라임병, 한타바이러스, 그리고 웨스트나일뇌염이다.

먼저 광우병은 ‘진보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불린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고기 생산자들은 동물을 도축할 때 버려지는 부산물들 -뼈, 내장, 방광, 젖통, 신장, 비장, 위장, 심장, 간, 폐 등의 장기들- 을 모아서 다시 판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남은 것들을 소나 양 같은

초식동물의 사료로 돌렸다. ‘하나님/하느님’께서 본래 식물을 먹도록 창조하신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농축된 고깃가루와 뼈가루, 즉 “MBM”(meat and bone meal)을 먹인 것이다. 그 결과가 광우병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소의 여물에 멸치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소가 이걸 먹으면 미치지’라고 말하며 골라내곤 했었다.

둘째로 에이즈는 사람들이 ‘성병’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 인간이 숲을 파괴한 결과다. 서양의 목재 회사들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숲을 무참히 베어낼 때 벌목 현장에 고용한 수천 명의 벌목꾼은 먹을 것이 없어 사냥한 야생동물 고기로 연명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남은 숲에서 고릴라와 침팬지를 비롯한 온갖 동물을 깡그리 잡아먹었다. 에이즈는 이렇게 인간이 야생 동물의 고기를 먹다 전파된 병이다.

셋째로 살모넬라는 항생제 내성(耐性)의 예견된 결과다. 세균이 항생제에 자주 노출되는 한 가지 특별한 환경은 바로 대규모 가축 사육 시설이다. 이런 곳은 몹시 비좁고 대개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소와 같은 동물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자주 약물을 쓴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항생제 살육 과정에서 살아남은 세균들은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강한 저항력을 지니게 된다.

넷째로 ‘제2의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라임병은 사슴이나 설치류에 붙어있는 진드기가 사람을 물 때 신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미국 북동부의 수많은 정착지에서 숲이 잘려나가고 대신 농장들이 세워졌다. 이주민들은 깊은 오지(奧地)까지 파고들었다. 현재 미국 동부의 숲 전체 면적은 2세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복원되었지만, 나무들만 돌아왔을 뿐 숲은 회복되지 않았다. 인간이 자연을 자신이 살기에 더 적합한 곳으로 만들려는 근시안적인 시도가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만든 것이다.

다섯째로 한타바이러스 폐 증후군은 희생자가 자신의 체액에 의사 당하는 치명적인 감염 질환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엘니뇨(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현상)로 말미암아 많은 비가 내린 곳에 생쥐 수가 급증하고, 생쥐 밀도의 증가에 뒤이어 이 병이 찾아왔음이 밝혀졌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이 질병의 원인이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웨스트나일뇌염은 나일강에서 건너온 바이러스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 바이러스는 철새를 따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비행기와 선박과 여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내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됐다. 인간은 자신의 여행이 온갖 생물이 사는 세계라는 큰 지도에 영원한 발자국을 남긴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미생물들도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세계를 여행한다. 웨스트나일뇌염은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인간 문명이 만든 질병이다. 경제의 세계화는 곧 질병의 세계화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경고는 아주 오래 전에 있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여섯 가지 무서운 신종 현재 질병들이 모두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골이 송연해진다. 코로나바이러스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 역시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zoonosis)의 하나다. 천연두, 소아마비처럼 인간만 침범하는 병은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인해 거의 박멸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의 새로운 위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코로나바이러스도 그중 하나다. 주로 열대지방에 모여 살던 박쥐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온대 지방까지 서식지를 넓혔다. 종간(種間) 접촉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쥐의 몸속에 있는 137종의 바이러스 중 61종이 인수공통 바이러스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넘어왔을까? 깊은 동굴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박쥐들을 세상으로 끌어낸 건 우리 ‘인간’이다. 박쥐가 인간의 세계를 침범한 게 아니라, 숲을 파괴한 인간이 박쥐의 영역에 침입한 것이다.

인간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흙과 물, 대기를 더럽히고 또 부를 과시하기 위해 ‘야생의 맛’을 즐기는 매우 탐욕스러운 존재다. 이런 인간이 다른 생물 종 서식지를 거리낌 없이 파괴하면서 종간(種間) 접촉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거기에 날로 확대되는 수송 능력은 삼시간에 병원체를 전 지구로 퍼뜨렸다. 지금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표적으로 삼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주제넘게 다른 생명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함민복의 시인의 <소스라치다>이다. “뱀을 볼 때마다 /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 말하는 사람들 // 사람들을 볼 때마다 / 소스라치게 놀랐을 / 뱀, 바위, 나무, 하늘 // 지상 모든 / 생명들 / 못 생명들.” 사람들은 박쥐를 보면 무섭고 놀란다고 하지만, 인간을 본 박쥐는 얼마나 더 무섭고 놀랐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만이 아니다. ‘생태적 거리두기’(ecological distancing)도 필요하다. 거리두기는 배려다. 존중이다. 그것은 이

웃을 배려하는, 그리고 ‘하나님/하느님’의 ‘동료 피조물’을 사랑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모든 대규모 전염병은 예외 없이 인간의 자연 파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 숲을 없애고, 생물 간 균형을 교란하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세계를 마구 돌아다니며 각지의 토착 생물들을 뒤섞고, 항생제를 남용하고, 초식 동물에게 고기를 먹이는 등 온갖 ‘기괴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파괴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위험에 빠질 것이며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떨어져 나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연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에코데믹』의 마크 제롬 월터스는 강조한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에 관한 책이 쏟아지나 이 병의 뿌리가 인간의 환경 파괴에 있음을 이렇게 또렷하게 고발하는 책은 없다. 저자는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에코데믹’(ecodemic)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쓴다. 생태를 뜻하는 ‘에코’(eco)와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epidemic)을 합성한 용어다. 즉 지금의 전염병은 인류가 지구 환경을 파괴한 결과로 나타난 전염병, 즉 ‘환경 전염병’ 혹은 ‘생태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이다.

어떤 일인지 우리는 전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만 보고 있다. 대중매체는 대개 새 질병과 맞서 싸우는 전투만을 따로 떼어내 다룰 뿐, 수많은 새로운 질병들을 아우르는 더 큰 이야기인 생태학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더 큰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들이 새로운 질병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자연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많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전염병들을 ‘에코데믹’(Ecodemic), 즉 ‘생태병’ 혹은 ‘환경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약 1만 년 전부터 대규모 전염병이 인류 전체를 휩쓴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정착 농업이 시작되고 인간이 소를 비롯한 가축들과 긴밀하게 접촉함으로써 미생물들이 인간에게로 넘어올 수 있는 새로운 다리

가 마련된 시기다. 이때 천연두, 홍역, 한센병 같은 질병의 발생이 증가했다. 둘째는 약 2,500년 전, 각각 자기의 자리를 잡은 문명 중심지들 사이에 접촉이 늘어나면서 질병 전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세 번째는 유럽의 이른바 ‘세계 탐험’이 늘어나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태평양 지역에 살던 토착민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전염병으로 희생당한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19세기 말 내내, 그리고 20세기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전염병이 크게 줄어들어 인류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 인간의 행복과 환경의 변화 사이에 상대적인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각 사회는 오래된 질병들 가운데 많은 것들에 대해 면역 능력을 획득했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조정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미생물과의 평화 시대’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인류가 일으킨 전례 없는 규모의 생태적 파괴는 결국 이 균형을 깨뜨렸고 다시 전염병을 불러왔다. 그 결과 지금 인류는 전염병 세계적 대유행의 네 번째 시기에 막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긴 터널의 입구에 막 들어섰다.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알프스를 등반하다 조난을 당했다. 실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 속에서 그는 ‘한쪽으로만 똑바로 가자’라고 결심하고 하루 13시간씩 12일을 걸어 탈출을 시도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난 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걸어 알프스를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구조대가 그를 발견한 곳은 그가 실종 당한 지점 근처였다. 한번 눈을 가리고 앞으로 걸어보라. 20m쯤 가면 4m의 오차가 생기고, 또 20m를 가면 다시 4m의 오차가 생기고, 그렇게 100m를 가면 결국 제자리로 되 돌아온다. 이것을 ‘유행 방향’(circle wandering)이라고 한다. 좌표가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종종 발생한다. 지금 인류의 문명도 이와 같다. 계속해서 앞으로, 한 방향으로, 쉬지 않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에코데믹』의 저자가 보여주는 큰 그림은 간단하다. 우리 인간이 현대의 전염병을 ‘부양’(扶養)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심성 없는 인류’는 우매하게도 자신의 집인 자연계를 제 손으로 파괴함으로써 원치 않고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들은 의학의 기적 시대의 아이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정들을 깊이 성찰하도록 만든다.” 현대 의학은 수명을 늘리고 고통을 덜어주긴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연 세계, 즉 숲과 기후와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동떨어져 있거나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이젠 우리가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다. 인간은 결코 자연과 자연의 한계에서 달아날 수 없다. 이 세계는 유한한 세계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열역학 제2법칙을 보아도 유한성의 세계다. 그러므로 인류가 무한히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다는 서구 근대 계몽주의의 위대한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이런 깨달음은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근원인 생태계를 잘 보존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달리 자연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착취한다면, 우리는 소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신체 건강을 희생시키는 것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마크 제롬 윌터스의 경고는 오래전 예레미야의 경고를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빼앗아 꺾으며 “이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멩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라고 거짓 위로의 예언을 말할 때, 예레미야는 “네가 나무 멩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멩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쇠 멩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라 경고했다(예레미야 28장). 지금은 거짓 위로의 메시지로 잠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 때가 아니다. 파수꾼의 정직한 눈으로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재앙을 ‘목숨 걸고’ 알려야 한다. (예레미야는 결국 이집트에서 동족의 돌에 맞아 죽지 않았던가.) 최재천 교수(이화여대 에코과학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하겠지만, 기후변화는 우리 중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다 찾아내 죽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말이 있다. 다윗 왕의 반지 안에 새겨진 문장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이 멈춰 선 시간이다. 생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하지만 이 사태도 결국은 잦아들 것이다.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그리고 시민의 협력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post-COVID 19)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익숙한 옛날’로 돌아가는가? 그런데 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일상은 과연 ‘평범한’ 일상이었을까? 만약 거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재앙을 감추고 있는 일상이라면 어떡하나?

지금 우리의 아픔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은 우리의 욕망이 만든 것이다. 매년 병든 닭을 10억 마리씩 소비하고, 5백만 마리의 가축을 이른바 ‘살처분’(殺處分)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그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그것이 과연 대안인가? 지금처럼 인간의 무한착취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북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굶주려 죽고, 남극 기온마저 영상 20도까지 치솟아 펭귄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세상에서 감염병은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것이다. 고(故) 김종철 선생의 말처럼,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 없는 ‘항구적인 비상상황’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는 결국 물러갈 것이다. 치료제와 백신도 나올 것이다.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욱 무서운 전염병이 올 것이다. 종간(種間) 전파로 퍼져나가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의 분자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서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런 신종 바이러스를 모두 막을 수 있는 백신 개발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온 세상이 멈춰버린 지금의 이 시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회개의 시간, 은총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기대하고 그저 견디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뼈를 깎는 자기쇄신 속에서 새로운 문명의 길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기다림이란 오늘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드는 일이다.”(생텍쥐베리, <어린왕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하느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로마서 8:18-22, 개역개정)

바울은 지금 창조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 그 안에서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산고(産苦)의 진통을 겪으며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을 본다. 인간만이 아니다. 유대 사상은 시간을 둘로 구분한다. 현재대는 악하고 무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하지만 곧 ‘주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하느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꿈과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바울도 이 소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 안에 온 피조물을 포함한다. 아담의 죄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창세기 3:17). 그러므로 죄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하느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개역개정) ‘누구든지’라고 했다. 우리는 보통 ‘누구든지’ 안에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부자와 가난한 자 등 모든 인간을 포함하지만, 바울에게 ‘누구든지’는 인간만이 아니다. 산천초목과 우주만물이 다 포함된다. 그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en christo)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kaine ktisis)이 된다는 선포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말심판이 우주적인 파국과 함께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인해 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의 창조신앙이다.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난 후 우리는 과연 달라질 것인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한착취가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이 달라질 것인가?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인간의 생활공간으로 넘어 들어오고 인간을 숙주(宿主)로 삼아 진화를 거듭하는 바이러스들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세상은 과연 달라질 것인가?

이제는 모든 게 바뀌어야 할 때다. 뿌리부터, 근본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종래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생활 방식 나아가 신앙습관으로는 더는 살 수가 없다. 인간의 깨달음이 왜 이리 처참한 비극을 겪은 다음에야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통절한 깨달음에 담긴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 인간의 학대로 수난당하는 동물들이 특히 - 지금의 이 “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한다.

정교회의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생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의 위기다. 우리는 지구를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무신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개신교회든 그리고 어느 이웃 종교든, 지금 우리의 신학적 위기는 ‘무신론’의 위기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보고 창조의 하루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사를 연발한 창조주의 사랑이, 생명이, 호흡이, 정성이 이 피조세계 안에 가득한 걸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마저 떠나 버린 죽은 물질의 세계로 간주하고 내 멋대로 파헤치고 쓰고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언젠가 누군가 “태도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인류문명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자세가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태도는 형식이나 겉모양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이고 속마음이며 내용이다. 그것이 바뀌어야 문명이 바뀐다. 그것을 종교인들이 종파와 경계를 넘어 함께 손잡고 할 수 있겠는가.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CIOM)의 공동문서 “Serving a Wounded World in Interreligious Solidarity”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용감한 선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anthropocentric)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나님/하느님은 별 속에 주무시고 / 식물 속에서 향기를 발하시며 / 동물 속에서 꿈꾸시고 / 우리 인간 속에서 깨어나시려 하네.” 어느 동양 신비주의자의 노래이다. 하늘과 태양, 그리고 달과 별들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모든 생명의 생명’(Life of all life)으로 존재하시는 신비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손잡고 상처 입은 세계를 치유하는데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함께 하기: 다양성과 포용성, 정의

양주열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만약에 사막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의 가치와 용도와 적정성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일치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교황청-세계교회협의회 공동문서 「종교 간 연대 안에서 상처 입은 세상을 돌보기」에서는 현재의 위기에 대하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인류의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공통 약점이 드러났으며 관계성의 위기, 특히 빈부의 간격, 특권층과 비특권층, 불평등과 편견에 의한 폭력성의 증가 문제를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인간적 취약성에 대한 경각심이 모든 인류의 연대 필요성으로 이어진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처 입은 세상, 바로 한국 사회 안에서 성찰과 행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입은 상처가 무엇인지, 왜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상처 입은 한국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많이 듣는 호소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 증상은 달라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근원적인 자리는 ‘함께하는 것이 자유로운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안에서 관계의 단절로 인해 드러나는 상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여깁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너무도 간단한 이유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원인은 소통의 프로토콜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프로토콜이 맞지 않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한국 사회의 상처를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위해 간단히 짚어보는 한국 사회가 입은 상처는 한국 사회가 파편화된 전체로 드러나는 것, 억압되어 온 비인격적 관계에 대한 저항과 기존 사회의 권위 상실 위기, 식별되지 않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한 관계와 보편 가치의 왜곡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처를 입은 한국 사회에서 성찰과 행동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 정의를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가 입은 상처 치유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공동문서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종교 간의 연대를 위한 기초로 모든 종교의 핵심인 ‘희망’과 그리스도교의 공통점인 ‘삼위일체 하느님’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희망’은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사랑과 동정심을 발휘하여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격려하며 촉구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느님’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지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게 하고 신앙인들의 연대 안에서 바로 성령의 연대를 체험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는 고통 받고 상처 입은 이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한국 그리스도교의 연대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이며 공통된 윤리적, 영적 가치가 담긴 ‘희망’과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복음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적 진리로 제시하며 복음에 충실함은 곧 한국 그

리스도교의 저력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생활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한 하느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은 절대적 진리가 인간 자신이 아닌 절대적 대상으로 존재함을 체험케 합니다. 절대적 상대 앞에서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치유의 능력이 되고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며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복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의 힘입니다. 주제 발표의 결론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연대를 위한 의식 전환 혹은 변형의 맥락에서 ‘함께 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

공동문서에서는 ‘정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칙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세상을 돌보는 종교 간의 연대’와 ‘코로나19와 그 이후 성찰과 행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 안에서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인 취약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며 곁손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곁손과 취약성을 지니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돌봄’을 향해 자신을 열면서 ‘함께 하기’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모범을 따르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을 따라 모든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진리를 말하고 불의를 당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은 용서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갈등이 해결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라는 말씀으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주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몫이 아닌데도 욕심으로 가지려고 할 때 정의가 공격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희생을 본받아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각자의 몫이 각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던 긴 역사를 체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큰 소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문서가 제시하는 것처럼

럼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부당한 권력과 불의로 인해 변두리로 밀려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도 기득권 앞에서 침묵하며 동참했던 삶을 회개하고 구조적으로 불의했던 모든 것을 쇠신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비판적 성찰을 쇠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억압하고 불의를 유지하는 구조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순교자의 정신으로 모든 차별을 줄이며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때 정의가 실현됩니다. 더 나아가 내면의 변형을 위해 정의에 대한 의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평등과 분배의 정의를 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정의는 평등과 분배를 넘어서 ‘필요’에 응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요’에 응답하는 정의를 ‘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마태 20,1-16 참조)입니다. 비유에서 선한 포도밭 주인은 평등과 분배의 정의를 넘어서 일꾼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또한 ‘복음’은 가난함을 참 행복으로 제시합니다. ‘복음’의 가난의 영성은 물질적인 가난을 포함하며 인간 존재가 ‘더 가지지 않아도 충분함’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문서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는 그릇으로 ‘공동체, 동정심, 공동선’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끌어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상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포용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 동정심을 키우며 공동선을 촉진함으로써 더 큰 연대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종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며 윤리적이고 영적인 가치로 제시되는 ‘희망’을 추구하는 가치에 바탕을 둥니다. 보편적이며 윤리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종교적인 포용성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성령의 은총과 열매로서 식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연대를 마련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또한 연대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해하고 증진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경청하는 대화는

상대방의 의도와 장점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며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동문서에서도 ‘존중’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알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공동선입니다. 이 공동선의 핵심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화는 타협과는 다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합의하는 타협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의 대화는 하느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대화이며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가 목적인 대화입니다. 이러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 동정심을 키우며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주제 발표에서 제시하는 종교와 종교 간에 연대할 수 있는 변화로 나아가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은 차별의 금지를 넘어서서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호 협력하는 그리스도교 일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스캔들은 분열입니다.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로 분리되어 있고, 같은 구세주를 고백하면서도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느님’은 고유하시면서도 일치하는 관계적 특성으로 하느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분열된 모든 것을 포용하시며 일치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는 포용성은 연대를 넘어서 더불어 살기 위한 그리스도교인의 하느님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한 처음 하느님께서서는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낙원에 살게 하시며 자식을 낳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더이상 인간은 하느님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범죄의 내용은 불순명과 교만이었으나 실상은 무지와 욕심으로 자신과 이웃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아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

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신 모든 일, 말씀과 기적, 수난과 죽음과 부활 모두가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 구세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상처 입은 세상을 돌보기 위해 하는 일이며, 또 해야 할 일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능력, 그리스도인의 고통 감수성

김은혜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읽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 사랑과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삶의 방향입니다.

특히 공동문서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매일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그것은 삼위하나님의 활동에 기초하여 ‘이웃 사랑과 봉사’라는 ‘그리스도인 본연의 삶의 방향’과 ‘전염병으로 상처받은 이웃과 지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성찰적 입장은 개신교 일반을 그 현장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초유의 코로나 사태는 교회로 하여금 성찰의 시간을 반강제적으로 갖게 하였습니다. 집착과 욕심, 서두름과 조급증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강제로 주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적 활동의 증지는

공평하게 멈추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는 무엇보다도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생명계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 생명뿐 아니라 인류문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역설적으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은총 안에서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를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숨결처럼 호흡처럼 이 땅 위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머물고 계십니다.

인간은 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증명된 것만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으며,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은 너무나도 유한하고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문서는 종교 간 연대의 7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세상의 고통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겸손”에 대한 인식과 정의를 외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연약함”을 인식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봉사는 교회와 사회, 성도와 이웃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와 경계를 넘나들며 교회 안의 정체성을 건설하는 초월자로서 하나님만을 상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접촉을 통해 물질적 환경을 덮고 둘러싸며 느낄 수 있는 영으로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는 못합니다. 바울을 통하여(롬 1:20)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은 만물 가운데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지구는 타락한 세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보는 하나님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인간들이 파괴해온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은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봉사의 삶은 일상과 예배를 더 가깝게 하고 예배와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긴밀한 관계를 삶으로 보여줌으로서 봉

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음을 교회가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즉 봉사의 실천이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 통계조사에서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최소한 한 종류 이상의 관련 활동을 하는 곳이 91.4%로 대부분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봉사를 하는데 낙락으로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영성과 방식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공동문서 취지에 설명하였듯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경계를 초월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위해 종교 간의 각성과 협력 및 연대가 코로나로 초토화된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보편적이며 공동된 윤리적, 영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교육하는데 교회가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봉사는 하나님, 교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 즉 봉사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막 10:45).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봉사를 구원을 위한 부수적이거나 이차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봉사는 교회와 기관을 통한 봉사로 축소될 수 없는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의 직무는 봉사의 직무였고, 세상에 대한 교회의 봉사는 구제와 자선의 형태로 2천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기독교 사회봉사의 성서적 기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7)⁹⁾는 개신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봉사 행위의 무기력이 지배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불러온 신학적 원인 중의 하나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웃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9) 레위기 19:18, 마태 22:39, 마가 12:31, 마태 25:40 등이다.

이웃의 범주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첫째, 율법학자를 영생의 길에서 가장 멀어지게 했던 질문이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무제한적, 무계약적, 무조건적 개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웃의 범주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봉사를 실천하지만 개교회 중심의 전도가 전제되는 봉사만을 고수하려는 한국 교회의 자세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방인들을 이단의 범주로 이웃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율법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중대한 오류는 이웃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이웃 사랑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의 봉사, 전도를 조건으로 한 사랑의 실천, 교파를 넘어서지 못하는 선교적 봉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봉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다시 일치시키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계층적이든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성숙 이원론은 하나님 사랑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개인 구원과 복음 전도를 우선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과 봉사의 삶을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개인 구원 중심의 전통은 값싼 은총을 구하며 사랑의 행위와 섬김의 봉사에 대한 무능함과 무책임을 교리적으로 정당화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에서 네 몸과 같이는 ‘카모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한글 개역개정에는 재귀적 표현으로 되어있지만 원어적 뜻은 너와 똑같이 라는 직접적 표현입니다. 그는 너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의 바른 신학적 관점은 사랑의 보편성을 실현하며 종교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한 가족이기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종교 간 연대는 “보편적이며 경계를 넘어서며 모든 인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즉 공동문서의 내용대로 “모든 차별을 줄이고 불평등을 치유하며 바르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소외된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비로운 연민을 키우며, 공동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대화와 상호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

랑의 바른 관계적 관점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이끄는 봉사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고 있는 공공의 장소, 곧 정치와 경제로 구현되는 생활세계의 공공성 개념과 공존하게 됩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편적 세계 통치의 내용이고 목표이며, 전체 인류들에게는 보편적이고, 공공적 성격을 띠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는 개혁교회 신앙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실천의 동력을 잃을 때 신앙의 본질도 잃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웃과 함께 극복하고 공생하기 위해 “경계와 분리를 넘어서 타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예수의 이웃개념으로 경계를 허물고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는 신학의 재구성이 중요 합니다.

재난은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난은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숨죽여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동문서는 특별히 “주변으로 몰린 이들”과 전염병으로 가장 희생당하고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재난은 더욱 혹독한 현실임을 강조합니다. 코로나는 정치적, 종교적 분야 등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는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위기이고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존과 공멸의 선택의 위기 앞에서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필요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공 이데올로기, 신국가주의, 인종차별주의, 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자아와 타자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자아중심의 사상들 모두 예수 사랑의 실천과 공존할 수 없는 인간의 이데올로기들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폭력에 노출된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전염병의 위험은 코로나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와 블랙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20대 여성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울한 보도도 있습니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으며 올해 1월~8월 통계에서도 자살을 시도하는 20대 여성은 전체 자살시도자의 32.1%를 점할 정도로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증가세다. 최근 ‘90년대생 여성들이

왜 목숨을 끊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룬 '조용한 학살' 편은 14만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¹⁰⁾.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의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그리고 일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되어가는 비대면 생활은 우리에게 또다른 고통의 현장을 대면하게 하였습니다. 비대면의 현실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지하서민들의 출현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밤과 낮을 잃어버린 택배기사들과 배달 노동자들을 포함한 '보통사람 이하의 존재들'(the undercommons)이 양산되고 그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존재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에서 예수는 그 무계약적 이웃 사랑의 앞에 강도 만난 자를 선택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학자의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는 반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청한 강도 만난 자, 지금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웃 진정한 의미가 드러남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한국 교회가 "나의 이웃이었습니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고통 감수성'을 증진함으로써 물질의 욕망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저항하고 이웃의 부름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모든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몸의 감각을 되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의 봉사의 새로운 사명은 긴급하게 지금 도상에서 반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예화 마지막에 예수는 가서 너도 이렇게 도상에서 거만 죽어가는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이렇게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들의 고통에 반응하는 사랑의 봉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10) 20~30대 여성 자살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취약계층으로서 고용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꼽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여성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여성실업률은 3.4%인데, 그중 20대 여성의 실업률은 7.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남성 실업률의 3배를 넘는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젊은 여성들의 실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침묵이 '조용한 학살'을 부른 주요인이 아닐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봉사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항거’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타자에 대한 환대로 고통감수성이 마비된 채 무감각하게 반복하던 신앙의 관습적 행위들을 중지하고 낮설고 당혹스러운 세계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인류가 함께 연대하고 공생하는 불가능한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공 같은 실패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히려 실패의 신학을 재구성하고 이 땅에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는 작은 자들의 약함과 처절한 실패의 그 자리에서 창조적 희망의 새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서 창조신학적 세계 이해와 확장된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통찰과 그리고 성숙 이원론에 대한 반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장된 이해는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어떤 간격도 극복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성육신은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실천하지 않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신앙이 세상에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사화 되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코로나 시대에 더 낮은 곳을 향해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온전한 감각’을 주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이 저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이 땅의 ‘온전한 현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감수성은 형식적 신앙과 화석화된 교리에 생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